경남 하동 방언의 문법 형태와 세대 및 의식 변화에 따른 문법 형태 사용 변화 연구

류성기 *

‖ **차례** ‖

1. 서론
2. 문법 현상
2.1. 대명사
2.2. 조사
2.3. 종결어미와 경어법
2.4. 연결어미
2.5. 시제
2.6. 부정
2.7. 피동, 사동 접미사
2.8. 보조용언
2.9. 부사
3.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의식
4. 결론

[국문초록]

경남 하동 방언의 문법 형태와 이 문법 형태가 표준어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하동 방언의 대명사는 표준어와 같은 형태는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방언 '니'와 같은 대명사를 제외하고, 다른 대명사는 조금 쓰이거나 없어져서 안 쓰인다. 격조사는 대부분 표준어의 격조사와 같다. 종결어미와 경어법 형태에서 명령형 형태인 '-거라, -게, -오/소, -이소' 형태가 60대 이상에서는 활발하게 쓰이지만 10대 초반에서는 아직 높임의 등급이 형성되지 않았는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대신 비격식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연결어미에서 대등적 연결어미의 방언 형태는 60세 이상

*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sgryu@cue.ac.kr

에서는 표준어와 방언 형태가 함께 50%씩 쓰이고 있으나 10대 초반에서는 방언 형태는 거의 안 쓰인다. 종결형 시제 형태는 60대 이상에서는 그 형태대로 거의 유지되어 오지만 10대 초반에서는 '-겠-'이 100% 쓰이고, '-ㄹ 끼-'와 같은 형태는 모두 표준어 '-ㄹ 것-' 형태로 바뀌 쓰고 있다. 부정 표현은 짧은 부정인 '안, 못' 부정과 '-지 말다' 부정이 쓰였으나 방언형에 없었던 '-지 않-, -지 못-' 부정이 60대, 10대에서 모두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사동접미사, 피동접미사는 표준어와 같고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보조용언도 표준어와 같은 방언 형태는 활발하게 쓰이나 표준어와 다른 형태는 60대 이상에서는 50%이상 비교적 활발하게 쓰이나, 10대 초반에서는 '-어 삐다, -어 되다'만 활발하게 쓰일 뿐 나머지는 약화되거나 안 쓰인다. 부사도 표준어와 같은 형태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표준어와 다른 형태는 60대 이상에서는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는데, 10대 초반에서는 거의 안 쓰인다. 어른, 어린이들 모두 표준어와 방언에 사용에 대한 차별 의식 없이 언어생활을 하고 있지만, 노인들은 어린이들에 비해 표준어에 대한 동경 또는 사투리에 대한 비하감 같은 것을 조금 더 갖고 있다. 표준어의 배움은 10대 초반은 학교와 텔레비전이고, 60대 이상은 대부분 텔레비전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방언 형태는 점점 사용이 줄어들고, 표준어로 통일화 되어 가고 있다.

주제어 : 하동 방언, 60대 방언, 10대 방언, 문법 형태, 방언 의식, 간섭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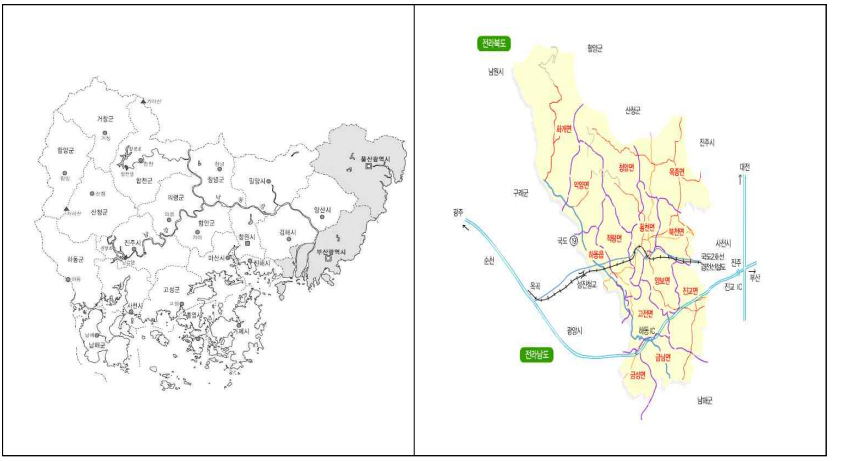
1. 서론

이 논문은 경남 하동군 방언의 문법 형태[1]와 이 방언의 문법 형태가 표준어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사용되는가에 대한 조사 연구이다. 지금까지 이 지역 방언의 문법 형태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김세진(2006, 2007), 강홍구(2011)에서 이 지역의 성조, 운율체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이정복(2004)은 문법적인 연구이나 '오시다, 오이소, 오시요'체의 쓰임과 변화에 국한된 연구이고, 위평량(2000)에서는 전남과 경남의 섬진강을 주변으로 한 방언의 음운, 문법 형태, 어휘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문법 형태

1) 여기에서 문법 형태는 문법 형태소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문법 형태소뿐만 아니라 문법과 관련된 요소인 일부 품사(대명사, 부사)까지도 포함하는데, 이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1980), 『한국방언조사질문지, 제5편 문법』 질문지 체계에 따랐기 때문이다.

에서도 문법 형태의 일부분인 1인칭 대명사 '나, 내', 격조사 '같이', 보조동사 '버렸다'의 변화, 연결어미 '몬'의 실현의 형태 변화, 의문형 어미 '-나?, -네?'의 변화, 인용문 축약형 '-고 하니?'의 방언형, 피동법 형태 '-어 지다'의 방언 형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주로 두 지역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에 따른 형태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 지를 논하고 있다. 류성기(2010)에서는 하동 지역의 동부 지역인 북천 지역 방언과 서부 지역인 악양 지역 방언의 문법 형태가 어떻게 다른 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김정대(2012)에서는 하동 방언의 문법 형태 '-네?, -냐?, -이고?, -를, -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문법 형태의 세대적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는 없다. 언어는 시대적, 지역적 영향으로 많이 변해 가는데 하동 방언도 이와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 방언의 문법 형태는 사용하는 세대 차이를 통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하동군은 경남 맨 서쪽에 있다. 북동쪽으로는 지리산, 남쪽으로는 남해 바다를 경계로 남해군이 있어 하동 남쪽 지역은 남해 방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서쪽으로는 섬진강이 있어 전라남도 광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전라도 광양 방언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북쪽은 섬진강을 따라 올라 가 전남 구례군에 접해 있다. 그래서 하동군의 북쪽인 악양면, 화개면은 전라도 구례 방언의 영향을 받고 있다. 동쪽 아래 부분은 사천시가 있고, 위 부분은 높은 고개를 넘어 하동군 북천면이 있는데, 북천면은 진주시에 접하여 있다. 그래서 북천면은 진주시 방언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지를 이러한 지역적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하동군 하동읍에 가장 가까운 적량면 지역으로 정하였다.



<경남 하동군 및 하동군 적량면의 위치>

방언 조사 일자는 2014년 11월 22일이다. 조사지는 경남 하동군 적량면 명리 명천부락과 동리 이정 부락이다. 명천 부락 노인정에서 만난 아래 노인분들((1)-(4)번 대상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조사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2015년 8월 14일에 다시 적량면 명리 명천부락 근처에 있는 적량면 동리 이정 부락을 찾아가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아래 인적 사항에 기록된 분들((5)-(6))에게 보완 조사를 하였다. 질문지는 류성기(2013, 2014)에서 사용된 질문지 내용에 항목 몇 가지를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방언의 표준어와의 간섭 현상으로 인한 방언 사용 정도에 대한 조사는 2015년 8월 29일 하였다. 60대 후반 이상에 대한 것은 하동에서 출생하여 생활하고 계신 72세의 정연가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분의 학력은 중졸이다. 하동 군청 직원 및 하동 읍장으로 활동하셨고, 현재는 하동 문화원 내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소장이며, 하동 노인대학 학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60대 이상[2]의 노인들의 언어사용 경향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10

2) '60대 이상'의 대상에는 60대, 70대, 80대도 있지만 이들을 편의상 '60대' 또는 '60

대 초반의 방언 사용 정도에 대한 것은 김희민, 문혜진, 서보경, 이선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하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며, 모두다 하동에서 출생하여 이곳에서 부모님들과 계속 생활하고 있는 만 11세 어린이들이다. 방언 제보자 및 방언 사용 정도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인적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보자 인적 사항

순위	이름	나이	학력	출생지	현 생활지	성별
1	진복순	82	무	하동 청암	적량 명천	여
2	신필수	83	무	하동 청암	적량 명천	여
3	이옥선	75	초퇴	횡천 상남	적량 명천	여
4	공을조	81	초졸	적량 동리	적량 동리	남
5	최일봉	65	초졸	적량 동리	적량 동리	남

2) (60대 후반 이상) 방언 사용 정도 확인 조사 대상자

(1) 제1 대상자 성별(남) (72)세 이름: 정연가 학력(중졸)
출생지: 하동 생활지: 하동 현 생활지: 하동

3) (10대 초반) 방언 사용 정도 확인 조사 대상자[3)]

순위	이름	나이	학력	출생지	현생활지	성별
1	김희민	11	초등 5	하동읍	하동읍	여
2	문혜진	11	초등 5	하동읍	하동읍	여
3	서보경	11	초등 5	하동읍	하동읍	여
4	이선진	11	초등 5	하동읍	하동읍	여

대 이상'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겠다.

3) 이 조사 대상자를 여학생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보아 남자보다는 여자의 언어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여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문법 현상

2.1 대명사

2.1.1 1인칭 대명사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인칭 대명사	일인칭 단수	나는 간다.	나	100	100	나	나(내)는 간다.
				10	25	내	
		내가 간다.	내	100	100	내	내가 간다.
		저는 갑니다.	저	10	0	지	지는 나갑니다.
		제가 갑니다.	제	100	100	제	제가 갑니다.
	일인칭 복수	우리가 갑니다.	우리	100	100	우리	우리가 갑니다이.
		우리들이 갑니다.	우리들	100	100	우리	우리꺼지(끼리) 갑니다.
		저희가 갑니다.	저희	5	0	저들	저들도 갑니다.
		저희들이 갑니다.	저희들	100	0	저이들	저이들 갑니다.

1인칭 대명사 ‘나’에 보조사 ‘-는’이 붙은 경우는 ‘내는’이라고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현재에는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60대 이상에서 10% 쓰이고 있다. 10대 초반에서도 25% 쓰이고 있다. 1인칭 겸양어 ‘저’는 ‘지는’과 같이 보조사 ‘-는’이 붙은 경우는 ‘지’로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60대 이상에서는 10% 쓰이고 있는데, 10대 초반에서도 안 쓰인다. 1인칭 복수로 ‘저희’는 ‘저들’로 쓰였는데, 이 형태는 60대 이상에서는 5% 쓰이고 있다. 그러나 10대 초반에서는 안 쓰이고 있다. ‘저희들’과 같은 경우는 ‘저이들’이라고 썼는데, 이 형태는 60대 이상에서는 100% 그대로 쓰고 있는데 반해, 10대 초반에서는 전혀 안 쓰인다.

2.1.2 2인칭 대명사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인칭대명사	이인칭 단수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너	70	30	너	너(니)는 뭐허네?
				30	70	니	
		네가 그것을 했느냐?	네	80	10	네	네가 그걸 했나? 니 그 허대.
				20	90	니	
		이것이 네 물건이냐?	네	90	0	네	요기 네 물건이냐?
		이것 네 것 아니냐?	네	10	100	니	이거 니 꺼 아이가?
		이것이 자네 것인가?	자네	100	0	자네	이기 자네 끼가?
		이것이 당신 것입니까?	당신	100	0	당신	요기 당신 낀가요?
	이인칭 복수	이것이 너희 것이냐?	너희	10	30	너거	이거 너거 기가?
		이것이 너희들 것이냐?	너희들	10	0	너거들	이거 너거들 기가?

하동 방언의 2인칭 대명사로는 '너/니, 자네, 당신, 너거'가 쓰였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너' 대신 쓰인 '니'가 60대 이상보다는 10대 초반에서 더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표준어 '너, 네'보다 '니'가 더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복수 형태 '너희'는 60대 이상이나 10대 초반에서 모두 표준어 '너희'가 많이 쓰이지만 하동 방언 '너거'도 10대 초반이 30%로 60대 이상 10%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 표준어 '너희들'의 하동 방언 '너거들'은 60대 이상은 10% 쓰이는데, 10대 초반에서는 표준어와 같은 형태 '너희들'만 쓰이고 있다. '자네, 당신'과 같은 형태는 60대 이상에서는 그대로 다 쓰이고 있지만 10대 초반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다. 이는 방언 사용보다는 이 두 용어가 10대 초반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사회언어학적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2.1.3 3인칭 대명사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인칭대명사	삼인칭 대명사	이이가 누구냐?	이이	10	0	여	여는 누고?
		그이가 어디 갔어?	그이	100	0	그이	그이는 어디 갔어?
		저이가 누구냐?	저이	50	0	저	저가 누군디?
		그는 어디 갔느냐?	그	100	0	(그 사람)	그 사람 어디 갔노?
		그녀는 어디 갔느냐?	그녀	100	0	(그 여자)	그 여자는 어디 갔노?
	재귀대명사	철수는 자기가 제일 잘 났다고 생각한다.	자기	50	80	지	철수는 지(/제)가 젤 잘난 체 허네.[4]
				50	10	제	
		아버지는 당신께서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	50	0	당신	아버지는 당신 께 제일 잘났다고 생각한다.

표준어 3인칭 인칭대명사 ‘이이, 그이, 저이’는 하동 방언에서는 ‘여, 그이, 저’로 쓰였는데, ‘여, 저’는 60대 이상에서는 10%, 50% 쓰이지만, 표준어와 같은 ‘그이’는 100% 쓰이고 있다. 그러나 10대 초반은 전혀 안 쓰고 있다. 10대 초반은 그러한 용어가 표준어이든 방언이든 잘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표준어 3인칭 대명사 ‘그, 그녀’는 하동 방언에는 쓰이지 않던 말인데, 현대에도 ‘그 사람, 그 여자’로 쓰이지 ‘그, 그녀’로 쓰이지 않는다. 10대 초반에서도 아직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은 용어라고 한다. 재귀대명사 ‘자기, 당신’은 하동 방언에서는 ‘지, 제, 당신, ø’로 쓰였는데, 60대 이상에서는 이 형태들이 50% 쓰이고 있고, 10대 초반에서는 ‘지’는 80%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제’는 10%밖에 안 쓰이고 있다. ‘당신’이란 말은 아예 자기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

4) 표준어의 예문과 방언의 예문은 일치해야 되겠지만 쓰임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문법 형태만 일치하는 것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문법 형태를 조사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지시대명사	사물	이것은 책이다.	이것	30	90	이거	이거는 책이다. 이기[5] 책이다.
		그것은 책이다.	그것	70	20	그거	그거이 책인가 베.
		요것은 뭐야?	요것	80	0	요기	요기 뭐고?
		저것은 뭐야?	저것	50	90	저거	저거는 뭐인디? 저기 뭐이고?
	미지칭	저것이 무엇이냐?	무엇	50	60	뭐	저거는 뭐인디? 머이고?
				50	80-90	머	
		저것이 뭐냐?	뭐	50	60	뭐	저기 뭐인디요? 머야?
				50	80-90	머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구	50	10	누	저 사람이 뉘고?/저가 눈디?
				50	0	뉘	
	장소	여기가 제일 좋아.	여기	80	0	여	여가 제일 좋아.
		거기가 제일 좋아.	거기	50	0	거	거가 제일 좋아. 거기 좋대.
				50	100	거기	
		저기가 제일 좋아.	저기	50	0	저	저가 제일 좋아. 저기가 좋긋네.
				50	100	저기	
	미지칭	어디 가느냐?	어디	30	0	어데	어데 가노? 어디 가는가?
				70	100	어디	
		언제 왔나?	언제	0	20-30	은제	은제 왔노? 언제 왔는디?
				100	70	언제	

사물을 나타내는 3인칭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요것, 저것’은 하동 방언에서는 ‘이거, 그거, 요기, 저거’로 쓰였다. 60대 이상에서는 ‘이거’가 30% 쓰이고, 나머지는 50에서 80%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10대 초반에서는 ‘이거, 저거’는 90%로 대부분 그렇게 쓰지만 나머지 형태는 0%에서 20%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물을 나타내는 미지칭 대명사 표준어 ‘무엇, 뭐’의 하동 방언 ‘뭐, 머’는 60대 이상에서는 표준어와 하동 방언을 50%씩 혼용하고 있고, 10대 초반에서는 60대 이상보다 오히려 하동 방언을

5) ‘이기, 그기, 요기, 저기’는 ‘이거이, 그거이, 요거이, 저거이’가 축약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더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머’는 85%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미지칭 대명사 ‘누구’는 ‘누, 뉘’로 쓰였는데, 60대 이상에서는 50% 사용되고 있고, 10대 초반에서는 ‘누’만 10% 쓰고 있고, ‘뉘’는 안 쓰고 있다. 장소를 나타내는 ‘여기, 거기, 저기’는 하동 방언에서는 ‘여, 거/거기, 저/저기’로 쓰였는데, 60대 이상에서는 아직도 ‘여’는 80% 이상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거’와 ‘거기’, ‘저’와 ‘저기’는 50%씩 각각 쓰이고 있다. 그러나 10대 초반에서는 ‘여, 거, 저’는 안 쓰이고 있고, ‘여기, 거기, 저기’가 100% 쓰이고 있다. 장소와 때를 나타내는 미지칭 대명사 ‘어디, 언제’는 하동 방언에서 ‘어데/어디, 은제/언제’인데, 60대 이상에서는 ‘어데’는 30%, ‘은제’는 안 쓰이고 있고, 표준어와 같은 ‘어디, 언제’가 거의 다 쓰이고 있다. 10대 초반에서는 ‘어데’는 안 쓰이고, ‘은제’는 25% 쓰이고, 대부분 ‘어디, 언제’로 쓰고 있다.

2.2. 조사

2.2.1. 격조사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표준어</th><th colspan="2">방언 사용 비율</th><th colspan="2">방언</th></tr>
<tr><th>예</th><th>형태</th><th>60대</th><th>10대</th><th>형태</th><th>예</th></tr>
<tr><td rowspan="5">주격 조사</td><td rowspan="3">아들이 온다.
소가 뛰어온다.
아들 온다</td><td rowspan="3">-이/가/ø</td><td>100</td><td>100</td><td>-이</td><td rowspan="3">아들이 온다.
소가 뛰어 온다.
아들 온다</td></tr>
<tr><td>100</td><td>100</td><td>-가</td></tr>
<tr><td>20</td><td>100</td><td>ø</td></tr>
<tr><td rowspan="2">할아버지께서 오신다.
할아버지 오신다.</td><td rowspan="2">-께서/ø</td><td>0</td><td>0</td><td>-께</td><td rowspan="2">할아버지께 오신다.
할아버지 오시네.</td></tr>
<tr><td>100</td><td>0</td><td>ø</td></tr>
<tr><td>보건소에서 오라고 합니다.</td><td>-에서</td><td>100</td><td>100</td><td>-에서</td><td>보건소에서 오라고 하신데예.</td></tr>
<tr><td>혼자서 그 일을 다 합니다.</td><td>-서</td><td>70</td><td>40</td><td>서</td><td>혼자서 그 일을 다 합니다.</td></tr>
<tr><td>목적격 조사</td><td>밥을 먹어라.</td><td>-을/를</td><td>100</td><td>100</td><td>ø</td><td>밥 무라.</td></tr>
<tr><td>보격 조사</td><td>물이 얼음이 되었다.</td><td>-이/가</td><td>100</td><td>100</td><td>-이</td><td>물이 얼음이 됐다.</td></tr>
<tr><td rowspan="2">관형격 조사</td><td rowspan="2">누구의 집이냐?</td><td rowspan="2">-의</td><td>100</td><td>0</td><td>-ㅣ</td><td rowspan="2">뉘 집이고?
뉘기 집이고?</td></tr>
<tr><td>0</td><td>0</td><td>ø</td></tr>
<tr><td>서술격</td><td>저것은 논이다.</td><td>-이다</td><td>70</td><td>100</td><td>-이네</td><td>저거는 논이네.</td></tr>
</table>

조사						
호격 조사	철수야, 이리 와라.	-아/야	100	100	-야	철수야, 이리 와라.
	아버지요. 아버지.	-요/ø	50	0	-요	아부지요. 아부지
			50	100	ø	
부사격 조사	밭에 갔다.	-에	100	100	-에	밭에 갔다.
	이것을 영수에게 주어라.	-에게	50	50	ø	이걸 영수 조라.
	이것을 아버지께 드려라.	-께	50	0	ø	이걸 아버지 드려라.
	이것을 영수한테 주어라.	-한테	100	100	-한테	이걸 영수한테 조라.
	어디에서 왔나?	-서/에서	50	0	-셔	어셔 왔노? 어이서 왔는디?
			50	100	-서	
	순이보고 말해라.	-보고	100	100	-보고	순이보고 말해라.
	순이더러 말해라.	-더러	100	100	-보고	순이보고 말해라.
	톱으로 잘라라.	-(으)로	100	100	-으로	톱으로 써리라.
	톱으로써 잘라라.	-(으)로써	50	0	-로가	칼로가 써리라
	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지.	-으로서	50	0	-이모	이장이모 당연히 해야지. 이장인께 당연히 해야지.
			50	0	-인께	
	이장으로 그러면 되느냐?	-으로	50	50	·	이장이 그러하모 되나?
	밭과 논에서 나는 식물	-와/과	10	50	-에	밭에 논에 나는 식물. 밭에서 논에서 나는 식물
			90	50	-에서	
	밭하고 논에서 나는 식물	-하고	80	10	-하고	밭하고 논에서 나는 식물. 밭에서 논에서 나는 식물.
			20	90	-에서	
	밭이랑 논에서 나는 식물	-이랑	20	100	-하고	논하고 밭에서 나는 식물 논이랑 밭에서 나는 식물
			80	10	-이랑	
	빨리 오라고 하였다. 빨리 오라 했다.	-고/ø	20	20	-고	빨리 오라고 했다. 빨리 오라 했다.
			80	80	ø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다.	-라고	100	100	-라고	'우리 아부지'라고 말했다.
	쌀밥보다 보리밥이 좋다.	-보다	100	100	-보다	쌀밥보다 보리밥이 좋다.
	나처럼 해 봐라.	-처럼	20	100	-처럼	내처럼 해 봐라. 나맹키 해바라.
			80	0	-맹키	
	나만큼만 해 봐라.	-만큼	100	100	-만큼	내만큼 해 봐라.
	밥은커녕 죽도 못 먹었다.	-커녕	0	0	-커니	밥은커니 죽도 못 먹었다. 밥은커녕 죽도 못 먹었다.
			100	100	-커녕	

주격조사 '-이/가, -께서, -에서, -서, ø'의 하동 방언은 '-이/가, -께서, -

에서, -서, ø'로 쓰여 표준어와 같다. '-께서'라는 높임말 형태도 아직 10대 초반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목적격 조사 '-을/를'은 하동 방언에서는 생략된 형태로 쓰이고 있다. '누구의'의 관형격 조사 '-의'는 하동 방언에서는 '뉘, 뉘기'처럼 '-ㅣ' 형태로 쓰이는데, 60대 이상에서는 이 방언 형태대로 100% 쓰이고 있다. 그러나 10대 초반에서는 0%이다. 호격조사는 '-야, -요'[6] 중에서 '-야'는 60대, 10대 모두 100% 쓰고 있지만 '-요'는 10대는 안 쓰고 60대는 아직도 50% 쓰고 있다. 부사격 조사 중에서 도착지를 나타내는 조사인 '-께'는 10대 초반에서는 안 쓰이고, '-한테'를 쓴다고 한다. 사회언어학적으로 수직적 언어 사회에서 수평적 언어 사회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의 하동 방언 '-이모, -인께'는 60대 이상에서는 50% 쓴다고 하나, 10대 초반에서는 안 쓰고 있다. '-처럼'의 하동 방언 '-맹키'는 60대 이상에서는 '-처럼'보다 활발하게 쓰이나 10대 초반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커녕'의 방언형 '-커니, -커녕' 중에서 '-커니'는 60대, 10대 모두 사용하고 있지 않다.

2.2.2. 보조사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보조사	딸은 간다.	-는/은	100	100	-는/은	딸은 간다.
	딸만 간다.	-만	100	50	-만	딸만 간다.
	딸도 같이 간다.	-도	100	50	-도	딸도 간다.
	날마다 논다.	-마다	70	100	-마다	날마다 논다. 날마등 논다.
			30	0	-마등	
	딸까지 갔다.	-까지	100	100	-까지	딸까지 갔다.
	딸마저 갔다.	-마저	80	0	-마자	딸마자 갔다. 딸도 갔다.

6) '나도요 학교에 가요'에서 문장 종결어미에서 쓰이는 '-요'는 비격식체의 '-요' 종결어미이며, 문장 중간에 쓰인 '나도요'의 '-요'는 존칭의 보조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된 '아부지요'의 '-요'는 '철수야'의 '-야', '대왕이여'의 '-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격의 '-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00	100	-도	
	딸조차 갔다.	-조차	10	0	-아불라(/러)	딸아불라(/러) 갔다. 딸조차 갔다.
			90	100	-조차	
	밥이나 먹자.	-(이)나	100	100	-나	밥이나 먹자.
	딸이나마 내편이어서 다행이다.	-(이)나마	100	100	-이나마	딸이나마 내 편이어서 다행이다.
	마음이야 꿀떡같다.	-이야	100	0	-이야	맘이야 꿀떡 같다.
	마음이야말로 꿀떡같다.	-이야말로	100	100	-이야말로	맘이야말로 꿀떡 같다.
	딸밖에 없다.	-밖에	100	0	-뿐이	딸뿐이 없다. 딸밖에 없다.
			100	100	-밖에	
	내가요 밥을요 했어요.	-요	30	10	-요	내가요 밥을 했오.

보조사 중에서 ‘-마다’에 해당하는 하동 방언에 ‘-마다, -마등’이 있는데, ‘-마등’은 60대 이상에서는 30% 쓰이고 있으나 10대 초반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다. ‘-마저’에 해당하는 ‘-마자’ 방언도 60대 이상에서는 80% 쓰이고 있으나 10대 초반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다. ‘-조차’에 해당하는 방언으로 ‘-아불라, -이나마’가 있는데, ‘-아불라’는 60대 이상에서는 10% 쓰이고 있으나 10대 초반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다. ‘-이야’에 해당하는 방언은 표준어와 같으나 10대 초반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다. ‘-밖에’에 해당하는 하동 방언은 ‘-뿐이, -밖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밖에’는 60대 이상과 10대 초반에서 100% 다 쓰이지만 ‘-뿐이’는 60대 이상에서는 100% 쓰이나 10대 초반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다. ‘-요’ 보조사도 60대 이상이든 10대 초반이든 그리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60대 이상은 30%, 10대 초반은 10% 쓰이고 있다.

2.3. 종결어미와 경어법

여기에서는 하동 방언의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서술형, 감탄형 종결어미가 경어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그 쓰임이 어떻게 변화되어 쓰이는가를

살펴보겠다.

2.3.1. 명령형 종결어미와 경어법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명령형	저리 가거라.	-어라	100	100	-라/-어라	저리 가라./처 묵어라.
		-거라	100	0		
	저리 가게.	-게	100	0	-게	저리 가게
	저리 가오.	-오	20	0	-오	저리 가오. 저리 가소.
			80	0	-소	
	저리 가십시오	-ㅂ시오	100	0	-이소	저리 가이소.
	저리 가.	-아/어	100	100	-아	저리 가.
	저리 가요	-아/어요	100	50	-요	저리 가요.
	저리 가세요	-으세요	70	50	.(-으세요)	.(저리 가세요. - 새로 사용된 형태)
	저리 가시지요	-시지요	80	0	.(-시지요)	.(저리 가시지요. - 새로 사용된 형태)

명령형 종결어미가 경어법 등급에 따라 표준어에서는 '-어/아라, -게, -오, -ㅂ시오'로 나타나나 이 방언에서는 '-어/아라, -게, -오/소, -이소'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60대 이상에서는 이 체계가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나 10대 초반에서는 아주낮춤의 '-어/아라'만 쓰일 뿐 다른 형태는 쓰이지 않는다. 비격식체인 '-아, -아요' 형태와 '-으세요' 형태가 활발하게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격식체는 60대 이상에서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특히 '-으세요, -시지요' 형태를 새롭게 쓰고 있다. 10대 초반에서는 격식체 높임의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다. 높임의 격식적 사용보다는 대신 비격식체의 활발한 사용 때문일 것이다.

2.3.2. 청유형 종결어미와 경어법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청유형	저리 가자.	-자	100	100	-자	저리 가자.
	저리 가세.	-세	100	0	-세	저리 가세.
	저리 가오.	-오	50	0	. (-오)	. (저리 가오.- 새로 생긴 형태)
	저리 갑시다.	-ㅂ시다	100	10	-ㅂ시다	저리 가입시다.
	저리 가.	-아/어	100	100	-아	저리 가.
	저리 가요.	-아/어요	100	100	-아요	저리 가요.
	저리 가세요.	-으세요	100	50	-으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시지요	-시지요	100	0	-시지요	저리 가시지요.

청유형 종결어미에서도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예사높임 '-오'를 제외하면 아주낮춤에서 아주높임까지 표준어와 같이 쓰이고 있는데, 10대 초반에서는 '-자'만 100% 쓰일 뿐 '-세'는 안 쓰이고, '-ㅂ시다'는 10% 정도 쓰일 뿐이다. 10대 초반에서는 아직 높임법 등급에 대한 의식이 덜 발달된 것 같다. 대신 비격식체인 '-아, -아요'는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100% 쓰이고 있다. '-으세요' 형태는 50% 쓰이고, '-시지요' 형태는 아직 쓰이지 않고 있다. 결국 60대에서는 높임법의 쓰임이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발달되어 있으나 10대 초반에서는 격식체 높임이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3.3. 의문형 종결어미와 경어법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의문형	무엇을 먹느냐?	-느냐	50	0	-노	머 묵노?
	무엇을 먹는가?	-는가	100	10	-는가	머 묵는가?
	무엇을 먹으오?	-오	100	0	-소	머 묵소?
	무엇을 먹습니까?	-ㅂ니까	100	10	-ㅂ니꺼	머 묵십니꺼?
	무엇을 먹어?	-아/어	100	100	.(-아/어)	.(머 먹어? - 새로 사용된 형태)
	무엇을 먹어요?	-아/어요	100	100	-아/어요	머 묵어요? 안 갈라요?
	무엇을 먹으세요?	-으세요	100	0	.(-으세요)	.(잡수세요. - 새로 사용된 형태)

의문형 종결어미는 격식체의 경우는 60대 이상에서는 방언형 ‘-노, -는가, -소, -ㅂ니꺼’로 쓰이고 있지만 10대 초반에서는 안 쓰이거나 10% 정도 쓰이고 있다. 비격식체인 ‘-아/어, -아요/어요, -세요’는 60대 이상에서는 100%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10대 초반에서는 ‘-아/어, -아요/어요’는 100% 사용하나 ‘-세요’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비격식체 ‘-아/어, -으세요’는 새로 사용된 형태이다.

2.3.4. 서술형 종결어미와 경어법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서술형	논에 간다.	-다/-는다	100	100	-ㄴ다	논에 간다.
	논에 가네.	-네	100	0	-네	논에 가네.
	논에 가오.	-오	.	.	.	
	논에 갑니다.	-ㅂ니다	100	10	-ㅂ니더	논에 갑니더.
	논에 가.	-아/어	100	100	-아	논에 가.
	논에 가요.	-아/어요	100	100	-아요	논에 가요.
	아버지는 논에 가세요.	-으세요	.	.	.	.

서술형 종결어미는 예사높임 ‘-오’는 하동 방언에 없었고, 지금도 60대, 10대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격식체 ‘-ㄴ다, -네, -ㅂ니더’, 비격식체 ‘-아, -아요’는 60대 이상에서는 100% 사용하고 있고, 10대 초반에서는 격식체 예사낮춤은 안 쓰고, 아주높임 ‘-네, -ㅂ니더’는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비격식체 ‘-아/어, -아/어요’는 60대, 10대 모두 활발하게 쓰고 있다. 표준어 ‘-으세요’ 형태는 방언형에 없고, 60대나 10대초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2.3.5. 감탄형 종결어미와 경어법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감탄형	꽃이 참 예쁘구나!	-(는)구나	100	100	-다	꽃이 참 예삐다./예쁘다!
	꽃이 참 예쁘구만!	-(는)구만	100	40	-네	꽃이 참 예삐네!
	꽃이 참 예쁘오!	-오	.	.	.	.
	꽃이 참 예쁩니다!	-ㅂ니다	20	0	.-ㅂ니더	(꽃이 참 예쁩니더!)
	꽃이 참 예뻐!	-아/어	100	100	.	(꽃이 참 예뻐! - 새로 사용된 형태)
	꽃이 참 예뻐요!	-아/어요	100	100	-요	(꽃이 참 이뿌네요! - 새로 사용된 형태)
	딸이 참 예쁘세요!	-으세요	.	.	.	.

이 방언의 감탄형 종결어미는 '-구나'는 없고 대신 '-다'가 있다. '-구만' 대신 '-네', 예사높임 형태는 없고 '-ㅂ니다'는 '-ㅂ니더'가 쓰였다. 그래서 격식체는 '-다, -네, -ㅂ니더'가 쓰였는데, 그 중 '-다, -네'는 60대 이상에서는 100% 그대로 쓰이고 있고, '-ㅂ니더'는 20%만 쓰이고 있다. 그러나 10대 초반에서는 '-다'만 100% 쓰이고, '-네'는 40% 쓰이고 있다. '-ㅂ니더'는 안 쓰인다. 비격식체 '-아/어'는 방언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겨 60대, 10대 모두에게 100% 쓰이고 있다. '-요'는 60대, 10대 초반 모두에게 100% 쓰이고 있다. 둘다 새롭게 쓰인 형태이다. '-으세요'는 없는 방언 형태이고, 새롭게 쓰이지도 않는다.

2.4. 연결어미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대등적 연결어미	형은 가고, 너 혼자 온다.	-고	100	100	-고	세이는 가고, 니 혼자 온다. (세이=형)
	노래를 불러 가면서 일을 하자.	-면서	50	10	-ㅁ서	노래 불러 감서, 일을 하자.
	다른 것은 다 먹더라도	-더라도	50	80	-어도	딴 건 다 무도, 개고기는 안

	개고기는 안 먹는다.					뭉는다.
	장에 가다가 안 온다.	-다가	0	25	-다가는	장에 가다가는 안 온다.
	이것은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인가?	-(으)며	50	50	-고	이거는 머시고, 요것은 뭐이고?
	너는 거기 가겠지만 나는 못 간다.	-지만	50	60	-아도	너는 거 가도 나는 몬 간다.
종속적 연결어미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	-(으)니까	30	0	-ㅇ께	밥을 뭉께, 배가 부르다.
	그것이 무엇이관대 그러냐?	-이관대	. (10)	. (0)	. (-이간대)	. (머시간대-새로 생김)
	내 아들을 보거든 얼른 오라고 해라.	-거든	10	0	-라컨	보걸라컨 얼릉 오라고 해라.
	점심을 먹으려고 간다.	-(으)려고	20	50	-으러	점심 묵으러 간다. 풀 베러고 간다.
			80	50	-러고	
	뜯어 볼수록 예쁘다.	-ㄹ수록	100	100	-ㄹ수록	뜯어볼수록 예삐다.
	너도 알듯이 내 딸은 예뻐.	-듯이	20	0	-디끼	너도 알디끼 내 딸은 예뻐.
	요사이 벼가 잘 돼서 참 좋다.	-아서/어서	100	100	-어서	요새 나락이 잘 돼서 참 좋다.
	비가 오면 물이 많다.	-면	100	0	-몬	비가 오몬, 물이 많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 물이 넘친다.	-니	50	100	-서	비가 너무 많아서 지치를 못하겠다.
	고구마를 주어 먹으러 내려온다.	-러	80	80	-ㄹ라고	주 물라고 내려온다.
	돈을 벌고자 장에 간다.	-고자	80	80	-ㄹ라고	돈 헐라고 장에 간다.
보조적 연결어미	방안에 빙 둘러 앉아 있다.	-아/어	100	100	-아	방안에 빙 둘러 앉아 있다.
	내년에 군대 가게 되었다.	-게	100	100	-게	내년에 군대 가게 됐다.
	미국에 가도록 되었다.	-도록	.	.	.	.
	아무도 오지 않았다.	-지	. (100)	. (100)	. (-지)	. (묵지 않았다.-새로 사용)
	글을 쓰고 있다.	-고	100	100	-고	글 쓰고 있다.
인용 연결어	장에 간다고 말했다.	-고	50	100	-고	장에 가신대(요).
	"내가 간다."라고 말했	-라고	.	.	.	.

미	다.		(50)	(100)	(-라고)	("내가 간다."라고 말했다.-새로 사용)

이 방언에서 사용되는 대등적 연결어미는 '-고, -ㅁ서, -도, -다가는, -고, -도'가 있다. 특이한 것은 표준어 '-며, -지만'이 안 쓰이고, 대신 '-고, -도'가 쓰이고 있으며, 표준어 '-면서'는 '-ㅁ서'로 쓰이는 것이다. 그런데 세대가 흘러 60대 이상에서는 표준어 '-며, -지만'과 이 방언 '-고, -도'가 50%씩 쓰이고 있으며, '-ㅁ서'도 표준어 '-면서'와 함께 50%씩 쓰이고 있다. 그리고 10대 초반에서는 '-ㅁ서'는 10%밖에 안 쓰이게 되었다. 이 방언의 종속적 연결어미는 '-ㅇ께, -라컨, -으러/러고, -ㄹ수록, -디끼, -모, -서, -ㄹ라고'가 쓰인다. 특이한 형태는 표준어 '-니까, -거든, -듯이'에 해당하는 이 방언의 '-ㅇ께, -라컨, -디끼, -모'인데, 이러한 형태는 60대에서는 20% 쓰이고, 10대 초반에서는 아예 쓰이지 않는다. 표준어화 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표준어 '-이관대' 형태는 이 방언에 없었는데, '-이간대'라는 방언 형태가 새로 생겨 60대 이상에서는 매우 조금(10%)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표준어의 영향을 받아 방언 형태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보조적 연결어미는 '-아, -게, -고'가 쓰였는데, 안 쓰이던 '-지'가 새롭게 생겨 60대, 10대 초반 모두에게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만 '-도록'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인용연결어미 '-고'는 잘 쓰이고 있으나, '-라고'는 안 쓰였다. 그러나 이 형태도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 표준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2.5. 시제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종결형	미래	경로당에나 가겠다.	-겠-	80	0	-리-	경로당에나 갈란다.
		경로당에나 가리라 .	-리-	100	10	-리-	경로당에나 갈란다.
		경로당에나 갈 것이다.	-ㄹ 것-	100	0	-ㄹ 끼-	경로당에나 갈 끼다.

	현재	밭에 간다./밥 먹는다.	-ㄴ/는-	100	100	-ㄴ/는-	밭에 간다./밥 묵는다.
		꽃이 예쁘다	-ø-	100	100	ø	꽃 예삐다.
		꽃입니까?	-ø-	100	100	ø	꽃입니꺼?
		논에 가고 있다.	-고 있-	100	100	-고 있-	논에 가고 있다.
	과거	식사 했습니까?	-었-	100	100	-었-	식사 했습니꺼
		어제 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더-	100	20	-더-	어제 가께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어제 뭐 했었오?	-었었-	50	80	-었-	어제 뭐 했오?
		어제 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었더-	100	30	(-더-)	어제 가께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관형사형	미래	경로당에 안 갈 사람 누구입니까?	-ㄹ	100	100	-ㄹ	경로당에 안 갈 사람 누입니꺼?
	현재	가는 분이 누구입니까?	-는	100	100	-는	가는 게 누입니꺼?
		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ㄴ	100	100	-ㄴ	착한 사람은 누입니꺼?
		지금 생일인 사람은 누구냐?	-ㄴ	. (0)	. (100)	. (-ㄴ)	. (생일인 사람은?-새로 생김)
	과거	어제 생일인 사람은 누구냐?	-ㄴ	100	100	-ㄴ	어제 생일인 사람이 니고?
		어제 장에 간 사람이 무엇하러 갔을까?	-ㄴ	100	100	-ㄴ	어제 자앙 간 사람이 뭐더러 갔으꼬?
		어제 갔던 곳은 어디냐?	-았던	. (100)	. (100)	. (-았던)	. (어제 갔던 곳은 어디냐?-새로 생김)

이 방언에서 종결형에 나타나는 시제 형태는 '-리-, -ㄹ 끼-, -ㄴ/는-, -고 있-, -었-, -더-' 형태이다. 특이한 사항은 '-겠-'이 안 쓰이고, '-리-'가 쓰였다는 것과 '-었었-, -었더-'와 같은 형태가 안 쓰이고, '-었-, -더-'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ㄹ 것-'이 '-ㄹ 끼-' 형태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가 60대 이상에서는 그 형태대로 거의 유지되어 오지만 '-었었-'도 '-었'과 함께 쓰이게 되었고, '-겠-'도 20%는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대 초반에서는 '-겠-'이 100% 쓰이고, 또 '-더-'와 같은 과거 회상의 형태는 잘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ㄹ 끼-'와 같은 형태는 모두 표준어 '-ㄹ 것-' 형태로 바꿔 쓰고 있다. 관형사형 시제 형태는 '-ㄹ, -는, -ㄴ'

형태들이 사용되었었는데, '-이다' 서술어의 현재 시제 관형사형 형태인 '-ㄴ'은 10대 초반에서는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 과거회상 관형사형 형태 '-았던'은 60대, 10대 모두에게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표준어의 영향으로 새로 발생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6. 부정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안, -지 않-	항상 오던 사람이 경로당에 안 온다.	안	100	100	안	장 오던 사람이 경로당에 안 온다.
	형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 않-	. (50)	. (50)	. (-지 않-)	. (형은 아직 오지 않았다.-생)
못, -지 못-	일이 있어서 못 간다.	못	100	0	몬	몬 간다.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다.	-지 못-	. (100)	. (50)	. (-지 못-)	.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다.-생)
-지 말다	더 놀다 가지. 가지 마라.	-지 말다	100	100	-지 말다	더 노다 가지. 가지 마라.

이 방언에서는 부정 형태 '-지 않-, -지 못-'은 사용되지 않았다. 짧은 부정 '안, 못'만 사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새로 생겨 60대, 10대 모두 사용하고 있다. 표준어의 영향이다. 그러나 '-지 말다'는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다.

2.7. 사동, 피동 접미사

2.7.1. 사동 접미사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젖을 먹여야지.	-이-	100	100	-이-	젖을 미이야지.
차를 좀 세워라.	-이우-	100	100	-이우-	차 좀 세워라.

저 사람 참 웃긴다.	-기-	100	100	-기-	저 사람 참 이낀다.
옷을 입혀야죠.	-히-	100	100	-히-	옷을 이피야죠.
불을 살려야죠.	-리-	100	100	-리-	불을 살라야죠.
잠을 깨워라.	-우-	100	100	-오/우-	잠을 깨와라.
두둑을 솟구어라.	-구-	100	100	-구-	소까라('솟구아라'의 준말)
좀 낮춰라.	-추-	100	100	-추-	나차라(낮추어라)
풀을 없애버려라.	-애-	100	100	-애-	풀을 없애뿌라.
		0	0	-배-	잠 좀 깨배라.

이 지역 방언의 사동접미사는 표준어와 같다. '소까라, 나차라'는 '솟구어라, 낮추어라'의 준말인데, 사동접미사는 '-구-, -추-'라고 볼 수 있다.[7] 경상도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배-' 사동접미사는 하동 지역에서도 쓰였지만, 이제는 60대, 10대 모두에게서 사용되지 않는 형태가 되었다.

2.7.2. 피동 접미사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머리카락 보인다.	-이-	100	100	-이-	머리카락 보인다.
소식이 끊겼다.	-기-	100	100	-기-	소식이 끊겼다.
아기가 엄마 등에 업혔다.	-히-	100	100	히-	아기가 엄마 등에 에꿨다.
새 소리가 들린다.	-리-	100	100	-리-	새 소리가 들리네.

이 방언의 피동접미사 형태는 표준어와 같고, 또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2.8. 보조 용언

7) '낮차라(나차라)'는 '낮추어라'의 준말이고, '낮차서(나차서)'는 '낮추어서'의 준말이다. 하동에서 '낮차고'란 말은 사용되지 않고, '낮추고'란 말로 사용된 것을 보아도 '낮차라, 낮차서'가 '낮추어라, 낮추어서'의 준말인 것을 알 수 있다.

2.8.1. 보조동사

구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진행	청소가 다 되어 간다.	(-어) 가다	100	100	-어 가다	다 돼 간다.
	날씨가 점점 추워 온다.	(-어) 오다	. (0)	. (100)	. ((-어) 오다)	. (날씨가 점점 추워 온다.)
	일을 하고 있다.	(-고) 있다	100	100	(-고) 있다	일하고 있다.
종결	길을 잃어 버렸다.	(-어) 버리다	100	100	- 어 삐다	길을 잊어 뻤다.
	밥을 먹고 나서 갔다.	(-고) 나다	.	.	·	.
	드디어 그 문제를 풀어냈다.	(-어) 내다	. (100)	. (100)	. ((-어) 내다)	. (그 문제를 풀어냈다.-생)
	그 일을 하고야 말겠다.	(-야) 말다	. (100)	. (100)	. ((-야) 말다)	. (하고 말겠다.-새로 생김)
봉사	꽃을 만들어 주었다.	(-어) 주다	100	100	-어 주다	꽃을 맹글어 주었다.
보유	책을 책상에 얹어 두었다.	(-어) 두다	50	30	-어 놓다	얹어 놔라.
	책을 책상에 얹어 놓았다.	(-어) 놓다	100	30	-어 놓다	책을 책상에 얹어 나았다.
	책을 읽어 가지고 와라.	(-어) 가지다	50	0	-어 가-	책을 읽어 가 오이라.
사동	누구를 가게 하느냐?	(-게) 하다	50	0	-고로 하다	누구를 가고로 하꼬?
	일이 잘 되게 만들었다.	(-게) 만들다	100	100	-게 만들다	일이 잘 되게 만들었다.
피동	종이가 잘 접혀 진다.	(-어) 지다	100	50	-어 지다	접어 지다.
	나도 가게 되었다.	(-게) 되다	100	100	-게 되다.	가게 됐다.
부정	나는 가지 않는다.	(-지) 아니하다	. (100)	. (50)	·((-지) 아니하다)	. (나는 가지 않는다.)
	울지 말아라	(-지) 말다	100	100	-지 말다	울지 마라
	너는 오지 못한다.	(-지) 못하다	. (100)	. (100)	. ((-지) 못하다)	. (너는 오지 못한다.-생)
강세	낮에 사온 강아지가 울어댄다.	(-어) 대다	100	10	-어 쌓다	울어 쌓네.
집작	기분이 좋아 보인다.	(-어) 보이다	.	.	.	.
	안 오는가 보다.	(-ㄴ가) 보다	30	0	(-ㄴ가)	기분이 좋은가 배.

					보다	
당위	약을 꼭 먹어야 한다.	(-어야) 한다	50	70	(-어 되다)	(약을 꼭 무야 된다.)
시인	밥을 먹기는 했다.	(-기는) 하다	. (50)	. (100)	. ((-기는) 하다)	. (밥을 먹기는 했다.-생)

이 방언에서의 보조동사의 사용은 표준어와 기능과 형태가 같은 형태, 기능은 같으나 형태가 다른 형태, 과거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형태, 과거에는 쓰였는데 사용량이 줄어들었거나 안 쓰이는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표준어와 기능과 형태가 같은 형태는 '(-어) 가다, (-고) 있다, (-어) 주다, (-어) 놓다, (-고로) 하다, (-게) 만들다, (-어) 지다, (-게) 되다, (-지) 말다'가 있다. 이러한 보조동사는 60대, 10대 모두 활발히 쓰고 있다. 기능은 같으나 쓰이는 형태가 표준어와 다른 형태는 '(-어) 삐다, (-어) 놓다, (-어) 쌓다, (-어) 되다' 등이 있다. 이들은 60대에서는 50%이상 비교적 활발하게 쓰이나, 10대 초반에서는 '(-어) 삐다, (-어) 되다'만 활발하게 쓰일 뿐 나머지는 0%에서 30% 내에서만 쓰인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표준어의 영향으로 새로 쓰인 형태는 '(-어) 내다, (-고) 말다, (-어) 보다, (-지) 않다, (-지) 못하다, (-기는) 하다'가 있는데, 60대, 10대 모두 활발하게 사용한다. 다만 '(-어) 보다'만 10대에서 아직 쓰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쓰였는데 사용량이 줄어들었거나 안 쓰이는 형태로는 '(-어) 가, (-ㄴ가) 보다'를 들 수 있다. 60대 이상에서는 사용량이 많지는 않지만 쓰였다. 그러나 10대 초반에서는 아예 사용되지 않는다.

2.8.2. 보조 형용사

구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희망	집에 가고 싶다.	(-고) 싶다	100	100	-고 싶다	집에 가고 시푸다.
부정	날씨가 덥지 않다.	(-지) 않다	100	100	-지 않다	날씨가 덥지 않으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	(-지) 못하다	100	100	-지 못하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다.

추측	저것이 학교인가 보다	(-ㄴ가, -는가, -나) 보다	50	100	-가 보다	저것이 학꾼가 베
	이제 가는가 싶다	(-는가, -나, -ㄹ까) 싶다	50	100	-는가 싶다	이제 가는가 시푸다.
시인	크기는 하다.	(-기는) 하다	. (100)	. (100)	. ((-기는) 하다)	. (크기는 하다.-생)

보조 형용사 형태는 표준어와 같고, 모두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다만 '-기는 하다'의 경우는 새로 생긴 형태이다.

2.9. 부사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실컷 먹어라.	실컷	100	0	실컨	실컨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많이	100	50	마이	마이 머거래이.
너무 많이 먹지마.	너무	100	100	너무	너무 마이 먹지 마래이.
조금만 먹어라.	조금	100	0	조그마이	조그마이 먹어라.
자주 와라.	자주	100	100	자주	자주 어니라이.
빨리 와라.	빨리	100	100	빨리	빨리 오니라.
얼른 와라.	얼른	100	100	얼른	얼른 오니라.
저 사람은 항상 늦어.	항상	50	50	만날	저 사람은 만날 늦어.
쟤는 늘 늦어.	늘	50	50	만날	쟈는 만날 늦어.
자꾸 온다.	자꾸	100	100	자꾸	자꾸 온다.
쟤는 걸핏하면 울어.	걸핏하면	30	0	거신하면	쟈는 거신하면 울어.
가끔 놀러 와라.	가끔	100	100	가끔	가끔 놀러 와라.
이따끔 소식이 들려왔다.	이따금	0	50	뜬금없이	뜬금없이 소식이 들려왔다.
먼저 할 사람?	먼저	100	0	먼지	먼지 할 사람?
나중에 할 사람?	나중에	100	100	나중에	나중에 할 사람?
미리 연락을 하고 오지.	미리	100	100	미리	미리 연락을 하고 오지.

감자가 가득 찼다.	가득	50	0	다뿍	감자가 다뿍 찼다.
몽땅 쓸어 담아라.	몽땅	100	100	몽땅	몽땅 쓸어 담아라.
모조리 없애 버려라.	모조리	10	0	모저리	모저리 없애 버리라.
숙제는 혼자 해라.	혼자	10	0	혼차	숙제는 혼차 해라.
형이랑 함께 가라.	함께	100	00	함께	형이랑 함께 하래이.
똑똑히 들어라.	똑똑히	100	100	똑똑히	똑똑히 들어래이.
기어코 그 일을 하겠느냐?	기어코	0	0	기어키	기어키 그 일을 할카 쌌네.
눈이 와서 겨우 왔다.	겨우	10	0	보도시	눈이 와서 보도시 왔다.
매우 좋아?	매우	50	50	참	참 좋아.
저절로 돈이 생기는 줄 아나?	저절로	50	0	제절로	제절로 돈이 생기는가?
그냥 좋아.	그냥	100	100	그냥	그냥 좋아.
설마 오늘은 안 오겠지.	설마	100	100	설마	설마 오늘은 안 오겠지.
하마터면 넘어질 뻔 했다.	하마터면	60	50	까딱하면	가딱하면 넘어질 뻔 했다.
공연히 그 일을 했어.	공연히	70	0	배끼	배끼 그 일을 했어.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100	100	가만히	가만히 있어 바
곧장 내려가면 학교야.	곧장	70	100	바로	바로 내려가면 학교야.
벌써 다 왔어?	벌써	10	0	벌시로	벌시로 다 왔어.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누구냐?	가장	100	100	가장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누고?

이 방언의 부사 형태는 표준어와 같은 형태, 표준어와 기능은 같으나 발음이 다르게 하는 형태, 형태상 다른 형태로 구분해서 살펴 볼 수 있는데, 표준어와 같은 형태 '너무, 자주, 빨리' 등은 60대, 10대 모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표준어와 기능은 같으나 형태가 방언 형태로 발음이 다른 형태 '실컨, 마이, 조그마이' 등은 60대에서는 활발하게 쓰이는 편이나 10대에서는 소극적으로 쓰이거나 안 쓰인다. 형태상 다른 형태로 쓰이는 것은 '만날, 뜬금없이, 다뿍, 보도시, 까딱하면, 배끼' 등이 있는데, '만날, 까딱하면' 등은 60대, 10대 모두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다뿍, 보도시, 배끼' 등은 60대에서는 비교적 많이 쓰고 있는데, 10대 초반에서는 안 쓰인다. 표준어화 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볼 수 있다.

3.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의식

방언의 문법 형태가 표준어화 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2015년 8월 29일 하동읍에 소재하는 원광평 마을회관 노인정(여: 6명), 광평 2동 경로당(여: 6명), 광평리 남당부락 남당경로당(여: 6명), 중앙 2동 마을 경로당(남:4명, 여 5명), 광평리 남당부락 하동초등학교 쉼터(남: 3명, 여: 5명), 동해량 경로당(남: 4명, 여: 4명), 청년회관길 중앙경로당(남: 9명, 여: 4명)에서 65세 이상의 56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의식을 설문조사하였다. 그리고 2015년 9월 25일 하동읍에 소재한 하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1명(남50명, 여 51명)을 대상으로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의식 조사'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숫자는 사람 수이고, ( ) 속은 비율(%)이다.

1. 표준어와 사투리의 사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번호	항 목	10대 초반	60세 이상
1	표준어로만 말하고 싶다.	9(8.9)	2(3.6)
2	표준어로 말하고 싶으나 때에 따라서는 사투리로 말하고 싶다.	9(8.9)	15(26.8)
3	사투리로 말하고 싶으나 때에 따라 표준어로 말하고 싶다.	3(3.0)	3 (5.4)
4	사투리로만 말하고 싶다.	21(20.8)	0(0)
5	어떤 말이든 상관치 않고 말하고 싶다.	59(58.4)	36(64.3)
계		101(100)	56(100)

위 표에 의하면 10대 초반 어린이들은 표준어에 대한 동경 같은 사고가 적다. 표준어로만 말하고 싶은 학생은 적고(8.9%), 오히려 사투리로만 말하고 싶은 학생이 20.8%나 된다. 그리고 표준어든 사투리든 상관치 않은 학생들이 59명으로 58.4%나 된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의외로 표준어로만 말하고 싶은 분이나 표준어로 말하고 싶으나 때에 따라 사투리로 말하고 싶은 분이 17명으로 30.4%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들이 어린이들보다 표준어 사용에 대한 의욕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준어든 사투리든 상관치 않은 어른들이 36명으로 64.3%나 되어 표준어, 사투리 구분 없이 쓰려고 한다. 그 주된

이유는 표준어로 잘 말하면 좋지만 지금 이 나이에 표준어를 배워 어디에 써먹겠나 하면서 어느 말이든 상관없이 쓰려고 하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의 사투리에 대한 호감 반응은 초등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방언에 대한 학습을 하였기 때문으로 사투리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2. 집, 동네, 학교, 시내에서 사투리를 써서 말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번호	항 목	10대 초반	60세 이상
1	구수하고 정겹게 느껴져서 나도 사투리로 말하고 싶어진다.	41(40.6)	6(10.7)
2	구수하고 정겹게 느껴지지만 많이 쓰고 싶지는 않다.	39(38.6)	39(69.6)
3	촌스럽게 생각되지만 조금은 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6(14.9)	11(19.6)
4	촌스럽게 느껴져서 쓰고 싶지 않다.	5(5.0)	0 (0)
계		101(100)	56(100)

이 표는 사투리 사용자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어린이들은 방언이 정겹게 느껴지고, 자신도 사투리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41명(40.6%)이나 된다. 이는 자신이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2-4번을 선택한 아이들이 60명(59.4%)나 된다. 구수하고 정겹지만 많이 쓰고 싶지 않고, 촌스럽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른들의 경우가 더 심하다. 사투리로 말하고 싶어 하는 어른들은 6명(10.7%)이고, 나머지 50명(89.3%)는 사투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3. 텔레비전 아나운서나 서울에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 표준어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번호	항 목	10대 초반	60세 이상
1	나도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17(16.8)	9(16.1)
2	나도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보통 정도 든다.	24(23.8)	10 (17.9)
3	나도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든다.	20(19.8)	11(19.6)
4	나도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40(39.6)	26(46.4)
계		101(100)	56(100)

이 문항은 표준어 사용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본 것이다. 10대 초반 어린이에게서는 표준어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학생이 17명(16.8%), 보통 정도 드는 학생이 24명(23.8%),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학생이 20명(19.8%)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학생이 40명(39.6%)로 가장 많다. 그런데 60세 이상에게서는 표준어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노인이 9명(16.1%), 보통 드는 어른이 10명(17.9%), 조금은 드는 어른이 11명(19.6%)로 표준어로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어른이 전체 30명(53.6%)이고, 들지 않은 어른은 26명(46.4%)이다. 이는 1번 문항에서처럼 표준어든 사투리든 상관없이 쓰고자 하는 마음에 기인한 것이라 본다.

4. 여러분은 지금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서 많은 부분을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표준어를 제일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번호	항 목	10대 초반	60세 이상
1	교과서가 표준어로 되어 있으므로 수업 시간을 통해 제일 많이 배우게 된다.	28(27.7)	9(16.1)
2	텔레비전에서는 주로 표준어를 써서 말하므로 텔레비전을 볼 때 표준어를 제일 많이 배우게 된다.	39(38.6)	33(58.9)
3	책, 잡지, 신문 등이 주로 표준어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제일 많이 배우게 된다.	9(8.9)	7(12.5)
4	표준어를 쓰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제일 많이 배우게 된다.	25(24.8)	7 (12.5)
계		101(100)	56(100)

표준어를 가장 많이 배우는 곳이 10대 초반은 텔레비전을 볼 때라고 하였다. 다음은 수업 시간이고, 그 다음은 표준어를 쓰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이다.[8] 이에 반해 60세 이상은 과반수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하고

8) 표준어를 쓰는 사람과 대화할 때 배운다고 한 학생도 있는데, 표준어를 쓰는 교사, 전학 학생, 표준어를 쓰는 지역에 살다가 내려오는 친척 등에게 배울 수 있을 것이

있다. 다음은 학교 다녔을 때 수업 시간에 이고, 그 다음은 책, 신문, 잡지 등을 볼 때와 표준어를 쓰는 사람과 대화할 때이다. 표준어를 쓰는 사람과 대화할 때란 자녀들이 서울에서 내려올 때나 손자녀들이 학교에 다닌다면 자신들이 사투리를 써서 말할 때 손자녀들이 표준어로 고쳐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어린이들과 어른들은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의식 없이 언어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표준어로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비하감이나 수치심 등은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지만 표준어로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표준어를 많이 배우는 곳은 10대에서는 텔레비전과 학교에서이지만, 60대 이상은 대부분 텔레비전에서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텔레비전의 영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4. 결론

경남 하동 방언의 문법 형태와 이 문법 형태의 표준어의 영향으로 인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하동 방언의 대명사로는 1인칭 단수는 '나, 내, 지, 제'가, 복수로는 '우리, 저들, 저이들'이 쓰였다. 그런데 '내는'일 때에는 60대에서는 10%, 10대에서는 25%만 쓰인다. '지' 형태는 60대에서는 10%, 10대에서는 안 쓰인다. '저희'의 뜻으로 쓰이던 '저들'도 60대에서 5% 쓰이나 10대에서는 안 쓰이고, '저이들'이라는 복수 형태는 60대에서 100% 쓰이나 10대에서는 안 쓰인다. 2인칭 단수는 '니, 너, 네, 자네, 당신, 너거, 너거들'이 쓰이고 있으나 이 중 '너거, 너거들' 방언 형태는 60대에서는 10% 사용에서 10대에서는 '너거'는 30%, '너거들'은 0%로 나타났다. '네'의 방언형으로 '니'가 있는데, 이는 60대(10%)보다 10대(100%)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대명사는 사물을 나타낼 때 '이거, 이기, 그거, 요기, 저거, 저기', 장소를 나타낼 때 '여, 거/거기, 저/저게'가 쓰였다. 60대에서는 대명사에 따라

다.

30%에서 80%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10대에서는 '이거, 저거'는 90% 사용하고 나머지는 0%에서 20%까지 쓰고, 대부분 표준어 형태로 바뀌었다.

둘째로 조사를 보면 격조사는 대부분 표준어의 격조사와 같다. 차이점만을 보면 주격조사 '-께서'의 하동 방언 형태 '-께'는 60대, 10대 모두 안 쓰인다. 부사격 조사는 여격의 경우 '-한테'가 60대, 10대 모두 가장 활발하게 쓰인다. 비교 '-처럼'의 하동 방언 '-맹키'는 10대에서는 안 쓰고, '-커녕'의 방언 형태 '-커니'는 60대, 10대 모두 안 쓰고 있다. 보조사 사용의 차이점을 보면 '-마다'의 방언형 '-마등'은 60대 30%, 10대 0%이고, '-조차'의 방언형 '-아불라'는 60대 10%, 10대 0% 이다.

셋째로 종결어미와 경어법 형태의 표준어와의 차이점을 보면 명령형 아주 낮춤 형태인 '-거라'는 60대에서는 100%, 10대에서는 0% 사용하고, 대신 '-어/아라' 형태가 사용된다. '-게, -오/소, -이소' 형태가 60대에서는 활발하게 쓰이지만 10대에서는 아직 높임의 등급이 형성되지 않았는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청유형에서도 10대에서는 예사 낮춤, 예사 높임의 형태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대신 비격식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의문형 종결어미에서는 '-노, -소'와 같은 형태가 10대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는가, -ㅂ니꺼' 형태도 10대에서는 10%만 사용되고 있다.

넷째로 연결어미에서는 대등적 연결어미는 '-고, -ㅁ서, -도, -다가는, -고, -몬, -도'가 있다. 특이한 것은 표준어 '-며, -지만'이 안 쓰이고, 대신 '-고, -도'가 쓰이고 있으며, 표준어 '-면서, -면'은 '-ㅁ서, -몬'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 60세 이상에서는 표준어 '-며, -지만'과 이 방언 '-고, -도'가 50%씩 쓰이고 있으며, '-ㅁ서, -몬'도 표준어 '-면서, -면'와 함께 50%씩 쓰이고 있다. 그러나 10대 초반에서는 '-ㅁ서'는 10%밖에 안 쓰이고, '-몬'은 아예 안 쓰인다. 이 방언의 종속적 연결어미 '-ㅇ께, -라컨, -디끼' 형태는 60대에서 문법 형태에 따라 10%에서 30% 사이로 쓰이나 10대 초반에서는 아예 쓰이지 않는다. 표준어화 됐다는 것이다. 인용연결어미 '-고'는 잘 썼으나, '-라고'는 안 썼다. 그러나 이 '-라고' 형태도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 표준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로 종결형에 나타나는 시제 형태는 '-리-, -ㄹ 끼-, -ㄴ/는-, -고

있-, -었-, -더-' 형태이다. 특이한 사항은 '-겠-'이 안 쓰이고 '-리-'가 쓰였다는 것과 '-었었-, -었더-'와 같은 형태가 안 쓰이고, '-었-, -더-'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ㄹ 것-'이 '-ㄹ 끼-' 형태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가 60대 이상에서는 그 형태대로 거의 유지되어 오지만 10대 초반에서는 '-겠-'이 100% 쓰이고, '-ㄹ 끼-'와 같은 형태는 모두 표준어 '-ㄹ 것-' 형태로 바뀌 쓰고 있다. 과거회상 관형사형 형태 '-았던'은 없던 형태였는데, 60대, 10대 모두에게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표준어의 영향으로 새로 발생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로 부정 표현은 짧은 부정인 '안, 못' 부정과 '-지 말다' 부정이 쓰였다. 그러나 지금은 방언형에 없었던 '-지 않-, -지 못-' 부정이 60대, 10대에서 모두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일곱째로 사동접미사에는 '-이-, -이우-, -기-, -히-, -리-, -우-, -구-, -추-, -애-, -배-'가 60대, 10대 모두에게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배'를 빼면 표준어와 같다. 피동접미사에는 '-이-, -기-, -히-, -리-'가 있다. 60대, 10대 모두에게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여덟째로 보조용언으로 기능은 같으나 쓰이는 형태가 표준어와 다른 형태로 '-어 삐다, -어 놓다, -고로 하다, -어 쌌다, -어 되다' 등이 있다. 이들은 60대에서는 50%이상 비교적 활발하게 쓰이나, 10대 초반에서는 '-어 삐다, -어 되다'만 활발하게 쓰일 뿐 나머지는 문법 형태에 따라 0%에서 30%까지만 쓰인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형태는 '-어 내다, -고 말다, -어 보다, -지 않다, -지 못하다, -기는 하다'가 있는데, 60대, 10대 모두 활발하게 사용된다. 다만 '-어 보다'만 10대에서 아직 쓰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쓰였는데 사용량이 줄어들었거나 안 쓰이는 형태로는 '-어 가지다, -고로 하다'를 들 수 있다. 60대 이상에서는 사용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쓰이고 있으나 10대 초반에서는 아예 사용되지 않는다.

아홉째로 부사로 특징적인 것은 표준어와 같은 형태 '너무, 자주, 빨리' 등은 60대, 10대 모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표준어와 의미는 같으나 발음이 다른 형태 '실컨, 마이, 조그마이' 등은 60대에서는 활발하게 쓰이는 편이나 10대에서는 소극적으로 쓰이거나 안 쓰인다. 형태상 다른 형태로

쓰이는 것은 '만날, 뜬금없이, 다뿍, 보도시, 까딱하면, 배끼' 등이 있는데, '만날, 까딱하면' 등은 60대, 10대 모두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다뿍, 보도시, 배끼' 등은 60대에서는 비교적 많이 쓰고 있는데, 10대 초반에서는 안 쓴다. 표준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열째로 어른, 어린이들 모두 표준어와 방언에 사용에 대한 차별 의식 없이 언어생활을 하고 있지만, 노인들은 어린이들에 비해 표준어에 대한 동경 또는 사투리에 대한 비하감 같은 것을 조금은 갖고 있다. 그래서 사투리를 조금만 쓰고, 가급적 표준어로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사투리의 중요성을 배운 까닭에 그래도 어른들보다 사투리에 대한 비하감을 덜 갖고 있다. 표준어를 배우는 곳은 10대 초반은 학교와 텔레비전이고, 60대 이상은 대부분 텔레비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하동 방언의 문법 형태 변화와 이 방언에 대한 60대 이상 어른들과 10대 초반 어린이들의 의식을 알아보았다. 이 지방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학교 교육에 의하여 표준어를 많이 배우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이 지방의 방언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향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대 이상의 사람들보다는 10대 초반의 어린이들은 특정한 몇 개의 용어를 제외하고는 방언 형태를 사용하기보다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그런가 하면 높임법과 관련된 문법 형태는 아직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용어인지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ABSTRACT]

The Grammatical Form of Kyungnam Hadong Dialect and the Change of the Grammatical Form

Ryu, SungGi

1. The pronouns of Hadong dialect same as standard word were used vividly, but dialect words besides 'ni' were scarcely used specially in 10s.

2. An auxiliary words same as the standard word are used well. But '-maengki, -keunyung, -madeung, -abulla' etc were used a little in 60s, but were scarcely used in 10s.

3. Final ending and honorific system in imperative final ending is '-geora, -ge, -o/so, -iso'. This type is used vividly in 60s, but in 10s were not used because of not forming this type. But nonformal type '-a/eo, -a/eo yo' are used vividly.

4. In the field of connective endings, equivalent ending of standard word and dialect as '-go, mye' etc are used well. But in 10s equivalent ending of dialect as '-mseo' etc were scarcely used. And quoted connective ending '-ko' is used well in 60s and 10s. But '-lago' was not used in the dialect but now '-lago' was used well.

5. The tense was same as the standard word besides future tense '-gess-'. But now future tense '-gess-' is used well in 60s and in 10s. The form '-assdeon-' was not used in the past dialect but now the form is used well in 60s and in 10s.

6. 'an, mot' negative expressions and '-ji malda' negative expressions were used in the dialect. They are also used well now. And '-ji an-, -ji mos-' forms which were not used in the dialect are also used well in 60s and in 10s.

7. Causative suffix and passive suffix are same as standard word besides '-bae-'. All the suffixes are used well now, but '-bae-' is not used in 60s and 10s.

8. The dialect auxiliary verbs same as standard word were used vividly. But ‘-eo ppida, -eo notta, -eo ssassta, -eo doida' are used actively from 60s, but are not used actively besides '-eo ppida, -eo doida' in 10s.

9. The adverbs same as standard word are used actively. But the adverbs different from standard word are used well comparatively in 60s, but are scarcely used in 10s.

10. The old people and teenagers use the language without thinking about the standard word and dialect. But the some old persons want to use the standard word well. The 10s learn the standard word at school and via television. The 60s learn the standard word via television. Influence of those they use the standard word much more little by little.

Key words : Hadong dialect, Dialect used in 60s, Dialect used 10s, Grammatical Form, Thought of the Dialect, Interference Phenomenon

참고문헌

❒ 기본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방언 조사 질문지』 제5편, 평강 정밀 인쇄 공업사, 1980, 407-453면.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5』, 국립국어원, 2006.

김정대 외, 「2010년도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 음운, 문법)」, 국립국어원, 2010.

❒ 단행본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경남방언연구』, 한국문화사, 192- 202면.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1, 276-530면.

김영태,『경남 방언과 지명 연구』, 경남대 출판부, 1998, 48-75면.

김정대,『경남 창원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2007.

남기심・고영근,『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5, 284-358면.

류성기,『한국어 사동사 연구』, 홍문각, 1998.

류성기,『초등 문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 박이정, 2008, 109-142면.

박정수,『경남 방언 분화 연구』, 한국문화사, 1999.

이익섭,『방언학』, 민음사, 2006.

최전승,『한국어 방언사 연구』, 태학사, 1995.

❒ 논문 및 평론

강홍구,「남부 지역 방언의 운율체계 비교 연구: 하동 방언과 광양 방언의 다음절 풀이씨 성조를 중심으로」,『어문연구』 제68권, 어문연구학회, 2011, 5-56면.

김세진, 「경남 서남부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김세진, 「사천 방언과 하동 방언 평측형 풀이씨의 형태성조론적 고찰」, 『한글』 제277호, 한글학회, 2007, 47-99면.

김정대,「산청 지역어의 성격-창원 지역어와의 대조를 통하여-」,『어문논총』제47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7, 153-166면.

김정대,「구술발화에 반영되는 방언 문법 요소-경남 창원 지역어 격조사를 중심으로-」, 『우리말 연구』제25집, 2009, 5-38면.

김정대,「영남권 섬진강변 언어의 문화 공간적 의의」,『어문논총』5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31-64면.

류성기, 「통영 방언 문법 현상」,『진주문화』제19호, 진주교대 진주문화권연구소,

2009, 31-54면.
류성기, 「하동 북천 방언 문법 현상:-하동 악양면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경남권문화』 제20호, 진주교대 경남권문화연구소, 2010, 51-78면.
류성기, 「창원 동읍 방언 문법 현상」, 『국제언어문학』 제26호, 국제언어문학회, 2012, 161-185면.
류성기,「표준어와방언의 간섭 현상으로 인한 산청 방언 문법 현상 연구」, 『방언학』 제18호, 한국방언학회, 2013, 289-324면.
류성기, 「표준어 간섭 및 방언에 대한 의식으로 인한 경남 함양 방언 문법 형태 변화 연구」, 『배달말』 제55집, 배달말학회, 2014, 55-92면.
박근배,「창원 지역어와 고성 지역어의 대비 연구」, 경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45-77면.
위평량,「전남·경남 접경 지역의 언어 연구」,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이정복,「하동 방언의 '오시다, 오이소, 오시요'체의 쓰임과 변화」, 『배달말』 제35호, 배달말학회. 2004.

이 논문은 2016년 03월 04일 접수되어 04월 11일까지 심사받아 04월 15일 게재 확정됨.